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방식 조기 착공

이용섭 시장 공론위 권고안 수용
16년간의 길고 긴 논쟁의 마침표
내년 상반기 착공되도록 힘쓸 것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저심도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 시장은 12일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위원회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전달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의 길고 긴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16년간 지역의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있던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을 오랜 국정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통해 진정한 중지를 찍음으로서 광주형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었고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일시



1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이용섭(왼쪽 두번째) 광주시장이 최영태(가운데) 광주시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시민 참여형 공론화 결과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중단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였다”며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자는 찬성 의견이 78.6%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21.4%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이 다른 어느 지역 공

론화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도시철도2호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차질없이 건설할 것임을 150만 시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론화는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이 생명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

다”며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관 부서를 교통건설국에서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옮기고 공론화위 구성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용역을 중지시켰으며, 1박2일 속의과정에서 공무원 참여를 금지하는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중앙정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건설 반대 측에서 제기했던 경제성, 안전성, 미래교통체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안전·신속·친환경 명품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취임 후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 심지어 반대와 질책을 무릅쓰고 공론화를 추진했다”면서 “시간은 걸렸지만 일방적으로 건설을 밀어붙였을 때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갈등 심화와 반대시위 등을 방지하고 광주 공동체가 분열없이 함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다

졌다”며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시키고 생활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은 두고두고 큰 성과로 남을 것이며, 그 판단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면서도 “시민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등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하되 결코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미래와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마지막으로 “조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 여러분께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경청 시장’이 되겠다”며 “신뢰와 연대의 터를 닦고 협치의 기본을 탄탄히 다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꽃감 익어가는 산사의 가을

장성 백양사 사찰 처마 밑에서 꽃감이 익어가고 있다. 장성군은 1970년대까지도 꽃감시(市)가 열릴 정도로 유명한 ‘꽃감의 고장’이다. 지금은 백양사가 자리한 북하면, 북이면을 중심으로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대봉 꽃감’을 연간 50억원 넘게 생산하고 있다. /장성군

목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단속

목포시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 26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및 위반조 등을 점검한다. 특히 12~13일은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데 목포시는 목포경찰

서와 함께 합동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주차자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광주시교육청, 예비초1 취학·소재확인 실시

초등학교 취학업무 설명회 개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경찰청, 주민센터와 함께 내년 초등학교 1학년 취학 및 소재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주민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대비해 ‘취학아동명부 작성’ 및 ‘취학통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취학업무의 전체 흐름’과 ‘취학시기에 발생하는 사건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취학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센터 담당자들의 업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광주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의 소재확인 방법과 경찰 수사상의 절차’,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

생 시 절차’에 관한 설명을 통해 취학 전부터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예비 학부모 입장에서 만들어진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자료를 마련해 주민센터가 취학통지 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입학절차 안내 자료는 자녀의 첫 입학준비를 하는 예비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 주연구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모든 취학대상 아동이 손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며 “단순히 취학을 높이는 단계를 넘어서 입학 이전 시점부터 꼼꼼하게 관리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안전망 운영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에 따르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2018년 12월31일까지 만6세에 도달한 아동)이 대상이다. 여기에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도 포함된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은 2019년 1월 9일(수)과 11일(금)이다. 예비소집 참석 시 주민센터가 배부한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아동과 보호자(대리인 가능)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해외유학을 계획 중인 학부모님도 예비 소집에는 참석해야 자녀가 ‘미등록학생’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미등록학생’에겐 기관의 소재 확인과 취학 독촉 조치가 취해진다. 사정 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빨리 학교를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입학은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신청 가능하다. /광주=봉태영 기자

인천시,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 집중 점검

주류판매·유해업소 출입 등 단속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영업이 예상됨에 따라 30일까지 청소년 유해 식품점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시, 군, 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1개반 44명의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일 당일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수능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느껴 유해업소에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식업계 영업주들은 식품점객서비스 수준 향상과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담양군 을 2억5000만원 복지 지원

담양군이 ‘행복도시 담양’을 위한 복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350가구에 2억 5000만원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좁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이혼,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1인 기준 125만4000원), 농어촌 재산기준(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이정희 주민행복과장은 “위기에 놓인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좁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9 | 해질 / 17:23

11월 13일 (화)
음력 : 10월 6일

수도권 날씨 **4 ~ 1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0/14, 동두천 2/15, 가평 1/13, 파주 0/14, 서울 4/14, 양평 3/14, 인천 5/13, 수원 3/14, 용인 3/14, 평택 2/14, 백령도 8/1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